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한다

중기부, 복합지원센터·공동기반시설 구축으로 지원정책 강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지난 14일 중기부에서 소상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총 166억원을 복합지원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들이다. 복합지원센터는 같은 업종의 소상공인 밀집도가 높고 복합지원센터 설치 시 고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며,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2곳의 지자체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총 1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합지원센터는 규모의 영세성, 설비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들에게 스마트장비 활용 및 제품개발, 전시, 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작업장에서 구비하기 어렵고 신소재 개발이나 샘플제작에 필요한 특수설비와 첨단기기를 구축하여 3D 설계, 역설계, 이미지 모델링, 제품설계, 디자인 등 정비활용과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둘째, 온라인 판매, SNS 마케팅 등에 필요한 콘텐츠(사진, 동영상 등)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우수소공인 제품 전시, 판매장도 구성하여 판로확대

를 지원한다.

셋째, 소상공인 협업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협업공간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이해 제고와 구매유구 제공을 위한 제조체험, 고객휴게 공간 등을 마련한다.

또한, 복합지원센터 지원과 별도로 소상공인 집적지 7곳 내외를 선정해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동기반시설은 공용장비, 공동 창고, 작업장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총 115억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협업을 유도하고, 집적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18년까지 16

개 지역을 지원했다.

한편, 이번엔 선정하는 복합지원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지역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관로 및 기술지원 사업 참여 시 기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집적지 소상공인에게 기획부터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일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지자체와 함께 집적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지역 제조업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민희 주무관(063-210-6438)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재근)가 지난 14일 양파 소비촉진을 위해 전주시 관내 복지시설 4곳에 양파 3000kg을 전달했다.

이웃의 건강증진 적극 동참

전북농협, 복지시설 4곳에 양파 3톤 전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재근)가 우리 지역 이웃의 건강증진과 양파 소비촉진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14일 양파 소비촉진을 위해 전주시 관내 복지시설 4곳에 양파 3000kg을 전달했다.

김장근 본부장, 박완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이 참석해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참사랑나눔(위원장 이계룡)을 방문하여, 우리 지역 소외계층에게 격려와 함께 전복에서 수확한 양파 1500kg을 전달했다.

작황호조로 인한 가격하락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서 전북본부는 양파소비촉진을 위해 관내 생산된 양파 3톤을 구매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또한, 전북농협은 범농협 임직원의 양파 팔아주기 운동, 양파농가 일손 돕기, 양파김치 담그기 및 나눔 행사 등을 전개하며 양파 농가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장근 본부장은 "양파 가격 하락으로 고심에 빠진 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을 통해 농가에 도움이 손길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양파 소비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오감만족 특별한 축제, 동네맛집이 한곳에!

aT, 코리아마켓 페스타 성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사)한국외식산업협회가 공동으로 '2019 코리아 먹킷 페스타(Korea Muk+Ket Festa)'를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했다.

2019 코리아 먹킷 페스타는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푸드페

스타 2019'의 오프라인 이벤트로 외식소비 촉진을 통해 외식매출 향상,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가공, 유통, 수출, 음식 관광 등의 연관 산업 발전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지역 맛집관 △종합식품관 △해의수출기업관 등 다양한 전시관과 스타 셰프 및 요리명장의 쿠킹클래스 △식산업 △외식창업 세

미나 등의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스타 셰프 및 요리명장의 쿠킹클래스에는 외식업계를 대표하는 유명 셰프 2인 여경래 셰프와 미카엘 아슈미노프 셰프가 특별 레시피 소개하고, 한식대첩4 우승자 변미자 대표가 건강하고 맛있는 한정식을 선보였다.

마켓관에서는 오픈형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내방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시식도 가능하며,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 일음을 이용한 화려한 카빙쇼, 매운 음식 먹기 대회 등 색다른 현장 이벤트도 열렸다.

더불어, 행사는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엔세계식량기후와 함께 '인반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환경 보호 실천에도 나섰다.

꽃소비 생활화를 위한 '일상꽃홍보관'을 운영해 침체된 화훼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도 했다.

행사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동네 맛집 소개, 관련 세미나 등 외식산업의 부흥에 목적이 있다"며, "국민 식생활 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외식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김제완주축협,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에 '구슬땀'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은 지난 14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찾아 '사랑의 농촌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사랑의 농촌 일손돕기'는 본점 경제팀과 김제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완주군 상판면, 김제시 금산면의 농가를 각각 방문하여 밀과 양파 수확에 도움이 되는 손길을 전했다.

또한, 일손돕기는 농번기철 바쁜 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고향 조합원 및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선정하여 6월 말까지 약 9차례에 걸쳐 진행 될 예정이다.

사람의 농촌 일손돕기로 도움을 받은 한 농가는 "일손이 부족해 양파 수확 걱정이 많았는데 조합 직원들의 봉사가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다"며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은 최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최상의 상호금융 지원을 위한 상반기 상호금융업무개선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급격한 상호금융 변화에 효율적 대응전략 모색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이 급격한 상호금융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전북농협은 최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상호금융업무개선실무협의회와 상호금융지원단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금융을 통한 지역 농·축협들의 균형 발전으로 농업인과 고객에게 최상의 상호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농업인이 바쁜 영농철에 적기 상호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상호금융 지원과 적극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모색했다.

지역축협의 자산전전성 제고·수익구조 개선·지역 간, 농협간 상호협력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으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결의했다. /김영태 기자

한전 남원지사, 다문화 가족 초청 발전소 견학 진행

한전 남원지사(지사장 정관영, 지회위원장 박종진)는 지난 12일 남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주여성)32명을 초청해 전남 영광의 한빛원자력발전소를 견학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사는 이주여성들에게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는 물론 정전 고장을 떠나 타국에서의 만만치 않은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전 남원지사는 "사회봉사단의 중점사업으로 '남원시 건강 가정, 다문

화 가족 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을 지사로 초청하여 직업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노후 전기 사용 설비 교체, 각종 문화 예술 공연 관람 제공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태 기자

농협네트웍스 전북지사, 영농차량 무상점검 실시

농협네트웍스(대표이사 권남회)가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을 위해 영농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했다.

농협네트웍스는 현대·기아자동차 차량점검반과 합동으로 지난 12일 익산군산축협에서 차량 180여대와 14일 임실농협에서 차량 200여대를 무상

점검했다고 밝혔다.

차량점검은 바쁜 영농철 시간대기가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순회 서비스로 이뤄졌으며 와이퍼 교환과 엔진 및 브레이크, 변속기 오일, 부동액·냉각수 보충,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의 무상서비스가 제공됐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